

2011.10.10 미래정책연구실

□ 경기둔화로 세계 식량가격 하락세

1. FAO(2011.10.06), Bloomberg(2011.10.06) 주요 내용

- 경기침체로 인해 식량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이 그간 크게 상승했던 식량가격을 하락세로 견인함. 또한 흑해연안(러시아, 카자흐스탄) 국가들의 곡물 수출량 증가도 곡물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FAO 식량가격지수가 8월 229.5에서 9월 225로 하락함. 2월에 237.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짐.
 - FAO의 곡물가격지수도 8월 252.4에서 9월 245.1로 하락해 올해 들어 최저치 경신
 -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9월에 50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
- FAO 선임 이코노미스트 압돌레자 아바시안(Abdolreza Abbassian)은 "식량 가격 하락의 유일한 원인은 경기둔화"라면서 "경제지표가 악화 되면 식량 가격은 더 떨어질 것"이라고 전망함.
 - 특히, 저개발국가는 실업률 증가, 소득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음.
 - 국제통화기금(IMF)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.3%에서 4%로 하향 조정했으며, 내년 전망도 4.5%에서 4%로 낮추는 등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.

<곡물 수급 상황>

- FAO의 곡물 전망 및 식량 현황(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: CPFS) 보고서에 따르면, 곡물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 시장 상황은 전년에 비해 것으로 예상함.
 - 세계 곡물 총 생산량은 2010/11년보다 3%(6,800만 톤) 증가한 23억 1천만 톤으로 나타남. 이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300만 톤 많은 수치이며, 밀과 쌀 생산량이 증가한데 기인

※ 주요 곡물 생산량의 전년대비 증감률: 밀 4.6%(3천만 톤), 쌀 3%(1,400만 톤), 조곡 21%(2,400만 톤)

- 곡물 총 수요량은 2010/11년보다 1.3% 증가한 23억 2천만 톤으로 예상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